

마추픽추

(페루)



잉카 문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페루의 마추픽추는 해발 2,430m에 자리한 곳으로, 보는 순간 탄성과 함께 ‘어떻게 오랜 옛날 산악림 속에 이런 공중 도시를 만들 수 있었든 걸까?’라는 의문과 신비감을 던져주는 곳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막상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가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해발 2,430m에 자리한 마추픽추는 열대 산악림 가운데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한다. 잉카 제국의 절정기에 건설되었으며 가장 놀라운 도시 창조물로 평가될 만한 이 유적의 거대한 벽, 테라스, 경사로는 마치 자연적으로 깎여서 형성된 절벽처럼 보인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경사면에 있는 이곳의 자연 환경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아마존 강 상류의 분지를 에워싸고 있다.

<https://heritage.unesco.or.kr/%EB%A7%88%EC%B6%94%ED%94%BD%EC%B6%94-%EC%97%AD%EC%82%AC-%EB%B3%B4%ED%98%B8-%EC%A7%80%EA%B5%AC/>

유네스코와 유산